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함이라 (야고보서 1:4)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야고보서 1:4)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께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과 사역위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저희는 지난날을 돌이켜 이곳 주님의 부르신 땅에서  
많은 사역 가운데 기쁨의 열매와 주님의 풍성한 사랑  
을 느끼는 기회가 된 동시에 이곳에 있기 때문에 당하  
는 고통과 많은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2009년 1월에 영국에 잠시 있으면서 칠십오세 가  
넘은 혼자 사시는 시아버님과 오랫동안 함께 맞이하는  
새해가 저희 가족과 사역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넘쳐  
라리는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천지 창조주의 우리 주께서 많은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시면서 다가올 미래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시간  
이 되었습니다.

2월에는 이곳 이스탄불에서 신종플루 (swine flu)에  
걸려 고열과 심한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치유하시  
어 몸이 크게 회복되었으며,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  
한 하나님의 성전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계기  
가 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 1월과 3월에 두번이나  
폐렴에 걸려 거의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던 것을 기  
억하면서, 우리의 작은 몸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서  
지기 쉬운 것인가를 느끼면서, 주님의 만져주심이 없  
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3월에는 아들을 데리러 학교에 가는데 버스에서 내  
리는 길에 발목을 잘못하여 짊어서, 인대가 끊어져  
한달반동안 발목에 기부스를 감고 살았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발목 질계에 위존하여 걸음을 걸으면서, 병  
원에서 다시금 나에게 어떻게 걸어야 할찌 치료를 해  
주었던 터키의 고마운 의사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었지만, 많은 시간을 주님  
과 함께 보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며, 같은 동역자들  
가운데, 나에 대하여 옴의 친구들같이 이 모든 것이 하



나님께 바로서지 못한 나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비난  
받았을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그 가운데서 주  
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나의 곁에서 대변자  
가 되신 주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4월에는 터키를 위한 중보기도연합회에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족과 사역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보  
여주시면서, 선지자의 영을 가지신 분을 통해서 많은  
격려와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  
은 분들의 기도로 발목질계의 의존없이 다시금 정상적  
으로 걷게 되었을 때의 그 기적은. 아마도 태어날 때부  
터 소경이 된 사람이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  
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 라고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치며 그분의 공홍을 기  
다리는 자처럼 저 역시 주님의 힘으로 다시금 걷게 되  
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감격은 지금도 잊지 못  
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우리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기름부어주심을  
느끼면서 많은 터키 현지인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일들  
과 많은 방문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기도와 사랑으로  
격려를 주었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6월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우리 집을 주인이 판  
다고 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서 우리의 거처를 인  
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곳에도 금식한 인플레이  
션으로 인하여 싼 월세집을 구한다는 것, 이사비용과  
계약금을 한꺼번에 지불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기도 가운데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믿음  
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7월에는 주님의 은혜로 따뜻하고 좋은 아파트로 이  
사를 갔는데, 옛날 집 주인이 우리를 재판에 걸어서 월  
세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사를 갔다고 하여, 4달  
치 월세를 요구하면서 횡포를 부리는 가운데 법정 소  
송으로 우리를 재판에 걸었습니다.  
오는 2월 2일에 이 일로 인하여 민사 법정에 서야 한

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일들로 인하여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며 괴롭혔던 시간들이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힘을 주셨으며, 그분의 강한 임재를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8월에는** 저희 회사의 청년들이 이곳 터키의 안디옥에 와서 일주일간 아름답게 현지들을 섬기면서, 기도와 많은 많은 사랑으로 이들을 격려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이 지역에서의 사역은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자 가족이 캐나다에서 터키로 돌아올 준비를 하는 이틀전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남편과 자녀를 그 자리에서 잃고, 혼자서 미망이 된 저희 사역자 자매의 슬픈 소식이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했던지 모릅니다. 지금도 혼자서 캐나다에서 요양치료를 받으면서 남편과 딸을 잃은 슬픔을 혼자서 이겨내고 있는 사역자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매의 장래를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9월에는** 한국의 기독교방송 CBS에서 저희 사역을 취재하여, 많은 성도님들께 이곳 모슬렘 선교의 도전이



되었으며, 많은 분들이 시청하여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사연들을 남겨주면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와 사랑으로 격려하시는 모든 동역자 분들에게 더 잘 이해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0월에는** 사랑하는 조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군복무를 마치고 난 뒤, 자신을 어떻게 대처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자식을 잃은 언니의 가족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찌 주님께 기도합니다.

**11월에** 남편의 50세 생일이 되어 이곳 사역자들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생일축하를 했습니다. 주께서 남편의 인생을 사용하시어 이곳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12월에는** 이곳 터키 현지인 여성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현지 여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이들이 주님께 나아올수 있을까 하는 많은 의논과 다음 사역의 준비가 되었던 일들과 성탄절을 맞이하여 많은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와 섬김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